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4월 1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12(월) 20:3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12(월)	담당부서	에너지혁신정책과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 권혁우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박성일 사무관(044-203-5126) 우석중 사무관(044-203-5654)

산업부 장관, 「한미 에너지장관회담」 개최

-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계기 양국 에너지장관간 교역·투자, 공동 연구 개발(R&D) 등 에너지 협력 확대방안 논의 -

- 「한미 에너지정책대화(기존 국장급)」 장관급 격상 추진키로 -

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.12(월)(한국시간 저녁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니퍼 그란홈(Jennifer Granholm) 美 **에너지부 장관과 「韓美 에너지 장관회담」을 화상**으로 개최하였음

○ 양국은 **교역·투자 확대** 등 에너지 분야의 **상호 호혜적 성과**를 공유하고, **친환경·저탄소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韓美 정책 기조**가 **동일한 방향**이라는 점에서 **지속적인 협력 필요성**에 동의하면서,

○ **에너지정책 협력채널 격상,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강화 등** 한미 양국간 **에너지 협력 확대방안**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함

○ 아울러, 미국 주도의 **기후정상회의**(4월)와 한국 정부가 준비중인 **P4G 정상회의**(5월)의 **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노력**해나가기로 하였음

□ **성 장관**은 한미 양국이 **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**을 계기로 **친환경·저탄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**를 통해 **기술혁신, 신산업 육성** 및 **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** 등 **양국간 정책목표와 방향이 일치**한다고 언급하면서,

○ **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**이 석유,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**전기차 배터리, 태양광,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산**되고 있으며 **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**가 있다고 강조함

○ 이에 대해 **그란홈 美 에너지부 장관**도 **기후변화 대응**을 위한 노력이 **특정 국가를 넘어 긴밀한 글로벌 협력을 필요**로 한다는 점에 동의함

○ 특히, 양국 장관은 **LG와 SK간 이차전지 분쟁의 원만한 마무리**를 계기로 **양국 정부와 기업간 관련 분야 협력이 보다 확대**될 수 있도록 **상호 노력**해 나가기로 함

□ 양국 장관은 **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**을 위한 **호혜적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상호의견을 공유**하고 아래와 같은 **에너지 분야 협력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**함

○ 첫째, 국장급 협력채널인 '**韓美 에너지정책대화**'의 **장관급 격상 추진**

* '09.6월 韓산업부-美에너지부간 협력의향서(SOI) 체결 이후 현재까지 11회 개최

○ 둘째, 양국 기업, 전문가 등 참여를 통해 **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정보 및 인적 교류, 투자 프로젝트 논의** 등을 위한 **양자 협력채널 강화**

○ 셋째, **차세대 이차전지, 수소, 탄소 포집·저장, 에너지효율 향상** 등 미래 청정에너지기술 분야에서 **공동연구개발 협력과 실증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사업화 성과를 도출**

□ 산업부는 이번 회담의 논의결과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가기 위해 **양국 협력채널을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**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박성일 사무관(☎ 044-203-5216) 또는 미주통상과 우석중 사무관(☎ 044-203-56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